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7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VOL.7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옆집’의 성인들

마음을 드높이

- 06 교회와 함께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설 I
- 10 말씀과 함께 | 바르티매오!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 14 묵상과 나눔 | ‘그해의 양심’을 위로하는 지금의 우리
- 17 가톨릭 상식 | 새로 산 묵주, 축복받아야 할까?
축성 받아야 할까?
- 18 책과 함께 | 《마음을 깨우는 다섯 걸음》
- 20 문화 속으로 | 영화 〈나의 산티아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4 선교 화보 | 페루
- 26 선교 이야기 | 엄마의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간加里
하느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 한 가족
- 30 선교 체험 | 페루의 선물 :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작은 나눔이 만든 큰 기쁨과 희망의 기적
- 36 선교지 소식 | 카자흐스탄 · 베트남 · 필리핀
- 44 사도직 이야기 | 필리핀 나보파스/해외 사도직

한마음 한뜻

- 52 수도회 소식
- 56 성모자매회 소식
- 62 수도원체험 | 침묵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사랑
- 64 후원자 명단
- 66 국내외 선교지

‘옆집’의 성인들



어느 날 우리 수도회 본원 아랫동네에 있는 정릉 시장을 지나던 길에 한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까만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가셨는데 한쪽에는 대파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트럭에 땅콩을 수북이 쌓아놓고 파는 아저씨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계셨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오며 며칠 전 우연히 영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도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지닌 남편 뒷바라지는 물론 어린 쌍둥이 딸을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녀원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내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수고와 힘듦을 감내하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할 것 같았지만, 어쩐지 그 답이 당연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녀원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바로 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길에서”(교회 현장 11항)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단한 삶이지만 사랑으로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는 이들, 이웃과 자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시선과 태도, 말 한마디, 작은 미소를 건네는 이들, 자기 삶의 경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는 이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반영합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7항). ‘옆집’의 성인들 중 한 분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좋으신 주님과 성모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드높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중에서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설 I

글 | 이제희 제히데레사 수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ete et Exsultat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2013)과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2016)에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사도적 권고(Apostolic Exhortation)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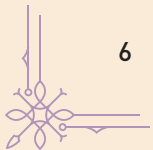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문헌은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친숙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그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헌을 다시 읽으며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따뜻한 격려가 담긴 편지를 읽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에페 1,4)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일깨워 주고픈 교황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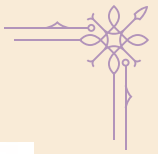
간절함이 와닿았고, “너도 거룩해질 수 있어”라는 교황님의 따뜻한 격려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저를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거룩함의 소명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일관된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역시 21세기 교회가 ‘거룩함’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와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 즉 성덕(聖德)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며, 오히려 고리타분한 가치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구시대의 유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심지어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이 시대에 맞게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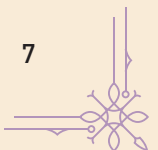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권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의 소박한 바람은 많은 위험과 도전과 기회를 안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맞게 실천적 방식으로 성덕의 소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2항).

‘옆집’의 성인들

거룩함을 재해석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신선한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성인은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전’이라 부르는 종류의 책들은 더 이상 현대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 나와는 너무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는 감탄과





경이로움은 불리일으킬지언정, 내 삶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나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며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삶은 점점 더 거룩함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 거룩해지려는 열망, 거룩한 사람에 대한 존경 등이 사라져 가고,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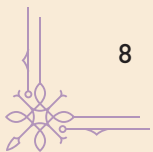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통해, 사라져 가는 거룩함의 가치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거룩함을 저 멀리 존재하는 것,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고결한 덕으로 여긴 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 가까이로 가져오는 것이 거룩함의 가치를 되살리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 내 시복 시성 절차를 거친 성인들이 보여 준 위대한 성덕의 가치’(3-5항 참조)를 먼저 언급한 다음, 이어서 “‘옆집’의 성인들”(6-9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이들, 구체적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



하는 수많은 남녀, 병자들,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老) 수도자”(7항)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인들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마주하게 되는 평범한 그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반영하여 거룩함의 표징이 됩니다.

성인의 조건은 비범함이 아니라 항구함이며 충실함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삶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 마음에 든 이들”(3항)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곧 “‘옆집’의 성인들”입니다. 바로 내 곁에, 바로 우리 옆집에 성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고 “‘옆집’의 성인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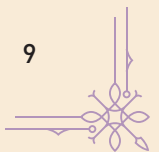


보편적 부르심과 고유한 응답

“‘옆집’의 성인들”은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 헌장〉 5장의 ‘보편적 성화 소명’의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거룩함은 수도자나 성직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는 ‘덜’ 거룩하고,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수도자나 성직자는 ‘더’ 거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러한 인식을 바로잡으면서, ‘성화 소명’은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보편적 소명임을 천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헌장〉 11항을 재인용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

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10항).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르심은 보편적이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저마다 자기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가 거룩해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해지는 여정, 거룩함의 모습은 매우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저마다 자기 길을 식별하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안배해 주신 개인적 은사인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하는 일”(11항)입니다. 조용히 성당에 앉아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정의를 외치는 일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거룩함에 다다를 수도 있지만, 그 욕구를 잘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거룩함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를 “더 생기 있게, 더 인간답게”(32-34항)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소명인 동시에 고유한 응답이라는 맥락에서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 겨울호에 이어집니다.



말씀과 함께

바르티매오!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마르 10, 46-52

글 | 양성부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가스파르 드 비트, 「예리코의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1671년 작품

걷는 존재 인간, 삶의 여정에서 완성되어 간다

나는 걷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머리가 복잡할 때,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도전을 만날 때, 북한산 둘레길을 걷곤 한다. 걸으면서 터득하게 된 것은 마음이 힘들 땐,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걸으면서 머리에 가득 찬 생각들과 무질서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땀이 흐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정작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내딛는 걸음과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게 된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10km 남짓 걷고 나면 그토록 골몰했던 ‘생각’이나 나를 온통 사로잡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그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걷기가 어떤 명료한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는 해 준다.

사실 인간의 삶도 하나의 여정(旅程)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걷는 존재’ 즉, 삶의 여정 안에서 완성 ‘되어 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수도 생활 역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걷는 하나의 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여정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주님 역시 한 인간으로서 당신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셨고, 그 길 위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마르코 복음서 10장은 예리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바르티매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해 준다. 특히 이 텍스트 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걷다(떠나다)’, ‘멈추다’, 그리고 ‘따라나서다’의 세 가지 동사(動詞)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마르 10,46)

주님은 길을 떠나시는 분,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은 하느님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과정을 통해 성장하셨다는 것이다. 인생이나 신앙 여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예수님 시대에 자신들이 하느님에 대해 소위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



루카스 반 레이덴, 「그리스도께서 예리코의 맹인을 고치시다」, 1531년 작품

다. 이에 반해 우리 주님은 하느님을 찾는 겸손한 ‘질문’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셨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과 군중들, 나아가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더불어’ 함께 걷는 길이며 특히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길(시노달리타스)’은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마르 10,49)

여정이란 걷기와 함께 반드시 멈춤이 필요하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이렛날에 쉬셨다”(창세 2,2)라고 전하는데 ‘쉬셨다’ 즉 ‘샤바트(שָׁבַט)’라는 히브리어는 ‘쉬다’와 ‘멈추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됨의 종결을 의미한다.

인생 여정은 완성된 종결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때로 멈추어 미래에 완성될 전체를

조망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시편 46,11).

예리코 길 위에는 아마도 바르티매오만이 아닌 수많은 군중이 저마다 외치고 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향한 가난한 이의 작은 목소리에 멈출 줄 아는 분이였다. 그분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의 외침은 그저 많은 주변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나도 숲길을 걷다가 가끔 멈추어 선다. 그러면 걸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한 것들, 작은 꽃과 새소리, 바람과 하늘의 구름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은 어느새 예전에 걸던 똑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일생을 통해 추구할 가치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지만 멈춤이 없으면 고귀하고 훌륭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매일의 삶은 자칫 그저 힘겨움과 지루함의 연속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지복직관(至福直觀)을 추구하지만, 불완전하고 한계가 가득한 지금 여기의 길 위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이 멈춤을 통해 나의 일상이 메마르고 지루한 ‘관행적 습관’이 아닌, 새로움이 가득한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린 매일 새롭게 걷기 위해 멈추는 것이고, 현실에 매몰되고 안주하지 않기 위해 걸어 나가야 한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마르 10,52)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박노해의 시 「다시」 중에서)라는 시구처럼 우리 주님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셨고, 동시에 당신 자신이 새 ‘길’이셨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과정이시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진리와 생명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며 앞장서 걸어가시는 분이다(요한 14,6 참조). 그래서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바르티매오는 구원을 얻은 것(마르 10,52 참조)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나선다. 예리코의 길 위에 ‘앉아’ 있던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새롭게 ‘걷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구원이 그에게는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새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바르티매오처럼 이 길 위에서 멈추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따라나선다.



‘그해의 양심’을 위로하는 지금의 우리

글 | 강은주 엘리나 수녀



국립5·18민주묘지 내 5·18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수도회 유기서원 수녀들

비극의 역사 안에 빛난 숭고한 인간의 기록

유기서원 수녀들은 매년 전체 모임을 통해 특별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느님과 수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래 수녀들과의 친교와 배움, 나눔과 기도를 통해 수도 생활의 열매들을 나누는 한편, 세상과 교회를 향한 기도와 연대의 걸음을 내딛기도 하지요.

올해는 7월 초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방문이었습니다.

전날 영화 <택시운전사>를 시청하고, 우리는 5·18 당시 최후의 저항이 있었던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 광장,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일빌딩245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망월동 묘역 내 5·18 구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순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를 몰랐던 우리는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잔악하고 비인간적이었던,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국가는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역사 이면에 참으로 인간다운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 정신 그 대로를 실천에 옮긴 놀라운 이야기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거리로 뛰어나간 이들, 독재 정권의 언론 검열에 맞서 <투사회보>라는 신문을 자체 제작하고 손으로 등사하여 진실을 알렸던 이들,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총알이 날아드는 거리 한가운데로 택시를 몰고 들어간 이들,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을 지원한 이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들 중 누군가는 마침내 법정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용감하게 증언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사재기나 범죄, 수탈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것들을 나누며 질서 있는 삶을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의 여정을 판화로 기록하고 표현한 홍성담 작가의 <오월 판화> 연작이 기억에 남습니다.



홍성담 작가의 <오월 판화> 연작 중 '대동세상'

광주 시민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끌어안은 채,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담담하게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구상할 때 영감을 받았다는 박용준 열사의 마지막 일기 한 줄은 유난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는 주인공이 광주를 떠나는 길목에서 어마어마한 고뇌 끝에 결국 택시 핸들을 돌리고, ‘광주’로 대변되는 ‘양심과 정의, 연대’의 자리로 서둘러 되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짧은 장면은 그날의 수많은 양심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준 열사를 비롯한 당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이렇듯 치열한 고뇌와 자신을 거스른 용기의 결정체였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울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진실을 흐리게 하는 왜곡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옳은 것을 바라고 진리 편에 서 있는지,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이웃,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요하게 연대하고 있는지, 일상 안에서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기는 분노는 양심과 연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공격의 화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빛과 실》 중에서

저도 ‘그렇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날 우리 마음에 타올랐던 뜨거운 그 무엇, 무더위 속에서도 삼삼오오 현장을 찾은 여러 방문객들의 소중한 발걸음을 떠올리면, 1980년 5월과 2026년 7월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되살리는 불씨로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로 산 묵주, 축복받아야 할까? 축성 받아야 할까?



성물은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표지로서 교회의 축복 또는 축성을 통해 거룩하게 사용됩니다.

성경, 묵주, 십자가상, 성상, 성화 등 개인이 사용하는 성물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사제나 부제가 거행하며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성물을 사용하는 이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며, 새로 산 자동차나 새집에 대해서도 사제에게 축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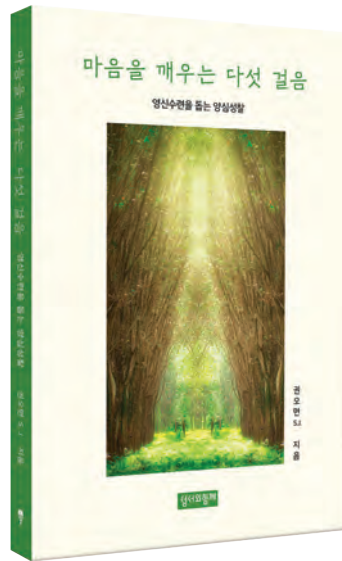
축복에 비해 축성은 더 깊은 봉헌의 의미를 지닙니다. 축성은 주로 주교가 집전하며 성당과 제대, 성유처럼 전례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대상에 행해집니다. 축성은 그 대상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오직 하느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구별하는 것이기에 개인 소유의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 성직자에 오르는 서품이 곧 축성입니다. 수도자의 삶 또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으로, 교회 안에서 ‘축성된 삶’이라 불립니다. 따라서 축성은 하느님께 속하도록 자신이나 사물을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축복과 축성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마음을 깨우는 다섯 걸음》

글 | 성서와함께 편집부 장윤이 마리아가페 수녀



권오면 S.J. 지음 | 성서와함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대화가 쉽지 않은 시대다. 스마트폰 화면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쇼츠나 릴스 같은 숏폼(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일상을 잠식한 탓이다. 언제 어디서든 틈만 나면 사람들의 눈은 이내 스마트폰을 향한다. 그런 우리 옆에서 스마트폰 화면과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신을 봐 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자.

눈을 돌려도 물론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나를 둘러싼 사람과 사물 그리고 나 자신이 눈에 들어온다. 하느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사건, 만나는 사람, 느끼는 감정, 다루는 사물, 그 모든 것 안에서 기꺼이 발견되신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은총을 베푸시며 당신과 사랑 어린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는 기도가 양심성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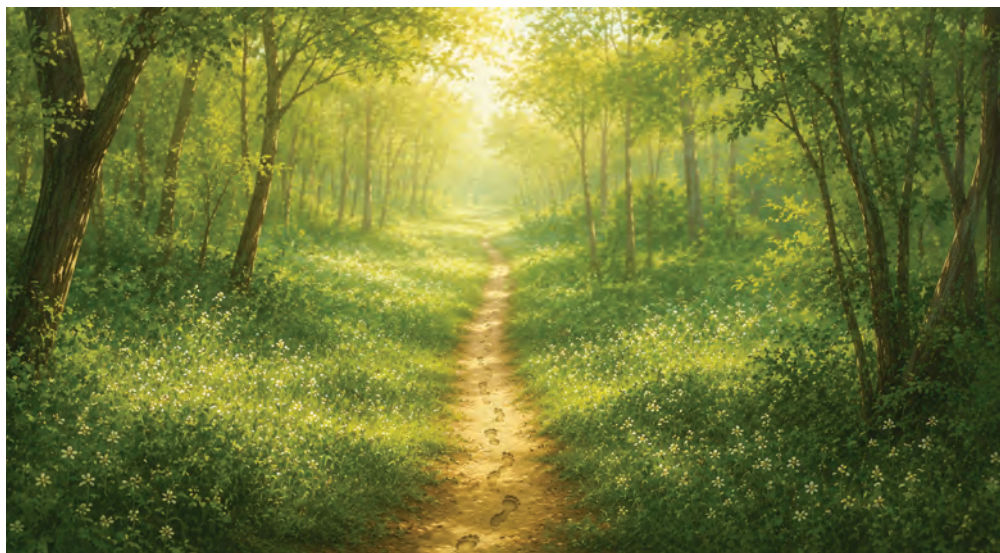
양심성찰이라고 하면 흔히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죄를 반성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자기 삶을 반성하고 잘잘못을 가리며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훌륭하다. 하지만 이는 양심성찰의 풍부한 의미를 다 담아 내지 못한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며 하느님을 향해 있는 인격의 가장 내적인 핵심이다. 양심이야말로 하느님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일상의 체험을 하느님의 빛으로 바라보기

양심성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돌아보며 감사드린다. 둘째, 주님과와의 관계를 심화하려는 갈망으로 지향을 굳게 세우고, 하루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한다. 셋째, 하루 동안 하느님이 어떻게 현존하며 일하셨는지 살펴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체험에 집중한다. 넷째, 마음의 움직임을 주님께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주님의 응답에 귀 기울인다. 다섯째, 성찰에서 베푸신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드리고 결심을 봉헌한다.

책에는 실제로 양심성찰 기도를 실천하는 이들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구체적인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감지하고,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알아듣고, 그에 기꺼이 협력하는 이들의 여정은 아름답다. 하루 15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상 앞에서든, 출퇴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든, 점심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면서든, 정 안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하느님과의 사랑 어린 관계로 나아가는 양심성찰을 실천해 보기를 권한다.



왜, 그 길을 걷는가? 영화 <나의 산티아고>

글 | 이대현(언론학박사, 영화평론가)



제목 | 나의 산티아고 (I'm Off Then, 2016)

장르 및 등급 | 코미디, 12세 이상

러닝타임 | 92분

감독 | 줄리아 폰 하인츠

출연 | 데이비드 스트리에소브, 마티나 게덱,
카롤리네 슈흐, 카타리나 살바흐

인생은 길 위의 날들

길은 시간이고 역사입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만 생깁니다. 길에는 그곳을 지나간 수많은 생명들의 삶과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길은 거기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가다 보면 다른 길과 만나고, 어디쯤에서는 작은 길이 큰 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길 위의 날들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길을 걷는 것이 오로지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이고, 착각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원초적인 두 다리 말고도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얼마든 있습니다. 편안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갈증과 허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험한 산길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걷습니다. 독일의 인기 코미디언 하페도 800km 산티아고 고행에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와일드>의 주인공 작가 세릴은 장장 4,285km의 아메리카 산악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혼자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길을 걸었고, 걷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길은 묻는다,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 어느 길을 선택하든 길은 걷는 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환희와 절망이 만들고 지킨 멀고 험한 산티아고 길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야고보의 발자취가 남은 성스러운 길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가진 것부터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배낭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듯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시간까지 버리라고.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도 말했습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 주는 손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우리 시간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그렇게 회의와 고통과 눈물의 여정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조금씩 믿음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변해갈 때 길은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 마른하늘에 베풀어 치듯 하페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는 그것을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그와 같은 속도로 걷고, 헉헉대고, 쓰러지면서 하루하루를 함께 합니다. 빨강 머리의 영국 여자 앤, 마음이 넉넉한 뉴질랜드 중년 여성 설라도 만납니다. 영화가 이따금 담아낸 감탄을 자아낼만한 풍경 역시 눈이 아닌 마음에 담습니다.

길은 사유와 자유를 이어 줍니다. 셋길을 어슬렁거리도, 가다가 멈춰 서도, 가던 길을 되돌아와도, 길을 잃고 헤매도, 거기에는 성찰과 사색과 주님과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영화와 책이 아무리 느리게 건너라도 그것들을 오롯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나가는 길, 글로 걷는 길보다는 느리고 힘들지만 직접 그 길을 걸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인생이 다르듯 그 걸음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발전은 새로운 평화의 이름이며,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다.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47항



페루 간또 그란데 렌꼬나다
미국 애틀란타 한인 선교팀과 신 스페란자 수녀 2026. 5. 24.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① 가정 방문 간가리 최연장자 인달루시아 할머니를 방문한 수녀들 2026. 4. 29. ② 봉성체 봉성체를 위해 환자를 방문한 곽 마리오 섹 수녀 2026. 5. 14. ③ 마을 축제 간가리 마을 축제 중 가마 행렬 2026. 5. 3.

| 비야 엘 살바도르 | 곽호임 마리오셀 수녀, 송선영 리사 수녀
 | 깐가리 공소 |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
 | 리마 선교센터 |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④ 공원 미사 레지오 그룹과 미국 보스턴 한인 선교팀이 공원에서 미사를 드렸다. 2026. 6. 6. 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축일 실코 공소 이콘 가
 마 행렬 2026. 6. 27. ⑥ 설립 94주년 기념 미사 우리 수도회 설립 94주년을 맞아 페루 선교 수녀들과 기념 미사 후 한 자리에 모인 피니에르 살
 바도르 주교와 구속주회 신부들 2026. 6. 24.



엄마의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깐가리

글 |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깐가리 공소 최연장자
인달루시아 할머니와 함께

십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깐가리의 변화

저의 선교 첫걸음은 2008년 안데스산맥 해발 2,200m에 자리한 페루 아야꾸초 대교구 완타 지역의 작지만 아름다운 농촌 마을 깐가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농촌 사람들은 마치 첫걸음을 떼는 아기를 바라보듯, 말도 어눌하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동양인 수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임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과 나누었던 사랑과 기쁨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저는 다시 페루 깐가리 공동체로 파견되었습니다.

십여 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은 환경적 변화도 꽤 있었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두세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들 젊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대부분 혼배성사를 하지 않고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 공소에서 봉사하며 미사에 참여하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결혼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과 가

정을 이루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20~30대 젊은 엄마들은 집안 일과 농사일을 하고, 주일이면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들을 보면 엄마의 마음으로 안쓰럽기만 합니다.

엄마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하다

이 젊은 엄마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모성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또한 혼배성사를 통해 성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요리와 재봉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고, 처음 만져 보는 재봉틀 앞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가방과 커튼을 만들어 갈 때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가장 깊은 원천은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과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는 무엇인가를 주거나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언어와 노년기로 접어든 몸과 마음은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족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 기쁨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엄마 같은 수녀, 할머니 같은 수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정한 이웃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교 수녀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



▼ 성모성심모임 आयुही
▶ 성모성심모임에서
조각 천으로 만든 손가방



하느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 한 가족

글 | 송선영 리사 수녀



공부방 아이와 함께

공부방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로

페루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초보 선교사입니다. 수도회에 들어오기 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은 있지만, 수도자로서 하느님의 뜻과 이끄심에 따라 이곳에 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시작한 소임은 놀라움과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하느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야 엘살바도르 분원에서의 삶은 본당과 공소 전례, 급식소와 공부방, 신심 활동, 그리고 단기 선교팀과의 만남 등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부방에 찾아오는 어린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곁에 앉아 간단한 숙제를 도와주고, 색칠하기나 단어 찾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저는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었고, 수녀로서 즐거움과 행복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일이나 다른 소임으로 바빠 며칠 만에 공부방에 가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겨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학

교 숙제를 보여 주었습니다. 집에서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붙여오라는 과제였는데, 아이는 AI로 저와 자기 모습을 예쁘게 그려서 붙여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느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 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축일을 맞아 아이들과 특별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느님과 성모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집에서 숙제를 도와주는 수녀와 자기 모습을 AI로 그려 붙인 숙제 노트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루는 한 봉사자가 저에게 “수녀님은 자녀가 참 많으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왜 자녀라는 뜻의 단어 ‘Hijo’를 썼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 돌보시며 사랑과 전구를 아끼지 않으시듯, 저 또한 아이들을 돌보며 성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순수함과 애정은 제게 낯설고 다름에서 오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열악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 아래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 기도는 아이들에게 큰 빛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모님처럼 교회의 자녀들을 돌보는 이 거룩한 여정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페루에서 선교하는 동안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쓴 이름표를 만든 공부방 아이들

페루의 선물 :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글 | 김유진 카타리나(미국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어긋난 기대가 가져온 변화

페루로 선교 봉사를 가기 전, 저는 이번 봉사도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계획, 원활한 소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봉사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루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계속 바뀌었고, 일정도 변경되었으며,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실망이 컸습니다.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은 모습대로 이루어

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답답함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기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이번 선교 봉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포질하고, 나무를 자르고, 자재를 옮기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저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는 성과를 만들어 내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명과 겸손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계획을 꼭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되지 않을 때일수록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간또 그란데 렌꼬나다 지역을 방문한 필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믿음이 자라는 때와 자리

믿음은 편안함이나 확신 가운데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느님께 맡길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어 주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미소와 웃음, 함께 하는 식사, 그리고 작은 친절들은 모두

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느새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기쁨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정이 끝날 무렵,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답답함과 어려움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대했던 방식의 성취감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태권도 시범 중인 필자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답답함은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제 계획보다 더 선하며, ‘집’이라는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페루는 저에게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A present from Peru

My mission trip to Peru was not what I expected—and that is exactly why it changed me.

Before going, I imagined that my experience would be similar to my last—clear plans, smooth communication, and visible impact. I thought I knew what it would look like to serve well. But soon after we arrived, I realized that this time things would be different. Plans shifted, schedules changed, and there were moments when it felt like nothing was going the way I had hoped.

At first, I found myself frustrated. I wanted things to run efficiently. I wanted to feel useful and understood. I wanted the work we were doing to match the picture I had created in my mind. But over time, I began to realize that much of my frustration was rooted not in the situation itself, but in my own expectations. I had unknowingly made the trip about how I wanted things to go.

Through the long days of physical

labor— sanding the gates, sawing the wood, carrying walls—I started to see something deeper. Service was not about control or results. It was about obedience, humility, and trust. It was about showing up with open hands rather than tightly held plans.

In the moments when I felt the most tired or discouraged, I was reminded to trust God—not just when things were going well, but especially when they weren't. I learned that faith is not dependent on comfort or clarity. It grows in surrender. It deepens when we release our need for control and allow God to work in ways we don't fully understand.

What impacted me most, however, was the people. Despite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there was a deep sense of connection. Smiles, laughter, shared meals, and simple acts of kindness became a universal language. I was struck by how quickly strangers began to feel like family. There was a warmth and joy that transcended words, reminding me that God's kingdom is far bigger than what I see

at home.

By the end of the trip, the frustrations that once felt so significant faded in comparison to what God had been teaching me all along. I didn't leave with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way I expected. Instead, I left with a changed heart.

I learned that true service requires surrender. That frustration can reveal hidden selfishness. That God's plans are better than my own. And that home is not defined by familiarity, but by the presence of God among His people.

Peru didn't just show me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it showed me a different way of seeing.

Cathy Kim



간도 그란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 공소 주일미사에서
영성체송 특송을 부르고 있는 필자

작은 나눔이 만든 큰 기쁨과 희망의 기적



글 | 이은정 크리스티아나
(미국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 성당)



건축물 벽체에 미리 방충약을 칠하는
보스턴 한인 성당 선교팀

삶의 터전을 잃은 야넷 가족을 위한 희망의 못질

김재익 요셉 신부님이 이끄는 총 10명의 보스턴 한인 성당 단기 선교팀은 6월 2일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오신 수녀님과 운전해 주신 분의 도움으로 먼지로 가득 한 메마른 땅 페루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비야 엘 살바도르에서 집짓기와 후원금 전달, 그리고 방과 후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의 급식 도우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을 집에 살게 될 가족은 좁은 공간에서 어린 네 아이를 키우는 부부였습니다. 가뜰이나 힘겹게 살던 이 가족은 얼마 전 설상가상으로 도둑까지 맞고 곤궁한 삶으로 시름하던 차에 공소 회장님의 추천을 받아 우리 선교팀과 연결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집터의 기초 공사와 도로 공사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 어렵사리 이루어졌고, 건축 자재들도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치질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건축 총책임자 에드윈 형제의 인내심과 배려, 그리고 노련함으로 집은 점점 꼴을 갖추어 갔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 야넷(Jhaneth)의 얼굴도 하루하루 밝아졌고, 친정어머니도 매일 공사 현장에 함께하며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네 아이들은 벽이 세워질 때마다 자기 방이 생긴다며 신나했습니다. 힘겨운 현실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우리

의 작은 도움은 새 희망이 되었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도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큰 힘을 써야 할 일에는 야넷의 남편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빠의 사랑까지 더해진 집은 완성을 향해 갔습니다.

마침내 비야 엘 살바도르 본당 올리아노 신부님께 집 축복을 받고, 보스톤에서부터 가져온 십자고상을 집 입구에 걸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집의 일부 공간은 산동네의 공동 밥집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나눔이 큰 기쁨과 희망으로 부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산 마르틴 급식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필자

정부나 정치는 갈 수 없는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선교

우리가 있는 동안 페루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려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매일 산동네 집터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고, 묵묵히 망치질과 붓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어려운 현실을 곳곳이 살아내고 있는 페루 국민들이 더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페루 정부나 정치는 가지 못할 또 다른 길을 통해 그 기회를 열어 주고자 31년째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들! 이분들의 여정에 올해도 보스톤 한인 성당 선교팀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신 본당 배 크리스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 그리고 비야 엘 살바도르에서 크고 작은 배려로 우리를 도와 주신 곽 마리오셉 수녀님, 송 리사 수녀님, 집짓기에 함께해 주신 신 스페란자 수녀님, 집짓기 총 책임을 맡은 이 글라 리사 수녀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준 집 축복식





동네 아이들의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신 이새 수녀, 카자흐스탄



❶ 알마티 교구 선교 수녀 모임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 2026. 5. 12. ❷❸ 집짓기 프로젝트 한글교실이 열리는 마리아의 집 여름방 단열재 보충 작업과 난방 공사를 한인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2026. 5. 25~31.



④ 설립 94주년 기념일 우리 수도회 설립 94주년을 축하하며 마리아의 집 여름방에서 교우들과 다과를 나누었다. 2026. 6. 27.

⑤ 견진성사 딸띠꼬르간 성당 청소년 3명의 견진성사가 있었다. 2026. 7. 5.



❶ 주일학교 견진성사 따하이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학생 및 가족과 함께 2026. 6. 9. ❷ 어린이 공부방 미술수업 김 마리앤 수녀와 어린이가 2026. 6. 20. ❸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축일 공부방 아이들이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쓰고 있다. 2026. 6. 27.

| 호치민 | 김미라 마리앤 수녀, 장수은 수은젼마 수녀

| 다낭 | 김희자 마리뤼다 수녀, 백미현 글라라 수녀



④ 스포츠 데이 동심킨더가든응우한선 여름 행사 후 아이들과 함께 2026. 6. 30. ⑤⑥ 한국 방문 서울 본원을 방문한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수녀들과 교사들, 그리고 관리장. 단양 고수동굴에서 시원하고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 2026. 5. 31.~6. 4.



① 그린존 공부방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최 요세핀 수녀와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 2026. 6. 11. ② 해변마을 아이들 마닐라 포구 해변마을에서 신나게 뛰는 아이들 2026. 6. 16 ③ 성서모임 주최 기도모임 성서모임 학생들과 수녀들 2026. 6. 13.



❶ 종신서원 예정반 해외 선교 체험 프로퍼 급식소 아이들에게 스티커 타투를 붙여주는 수녀들 2026. 6. 19. ❺ 이동 공부방 린창고 급식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공부방 2026. 6. 25.

필리핀 나보따스/해외 사도직

누군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했다 나보따스에 뿌린 희망의 씨앗, 그 후 20년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불과 20~30분 거리. 그러나 삶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곳,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곳, 나보따스. 20년 전 이곳에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파른 사다리 너머로 보이는 나보따스 마켓3 지역



반갑게 달려와 손을 잡는 어린이들

도로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상

나보파스에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예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극빈 지역인 동시에 세계 3대 슬럼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높은 담 위에 놓인 가파른 철제 사다리를 내려가면 ‘집’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어설프고 빈약한, 천막으로 겨우 하늘을 가린 작은 공간들이 다닥다닥 이어 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좁은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맨발인 아이도 있고, 나달나달한 슬리퍼를 끌며 뛰노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생활하수가 뒤섞인 웅덩이가 있고, 쓰레기가 널려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칩니다. “시스터!”

이 한마디에 수녀들도 손을 흔들며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달려와 손부터 잡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한 가족 같아 보입니다.

“수녀님, 발 조심하세요.”

20년 전 나보파스 선교를 시작한 김봉자 루시아 수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건넨 짧은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수녀님, 발 조심하세요.”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고,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험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이 길을 처음 온

이방인 수녀에게 건넨 걱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낯선 언어, 낯선 문화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은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 척박,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상도 못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삶은 절망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고,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먼저 마음을 열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루시아 수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보다,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이들 곁에서 함께 살아온 스무 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보파스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엔 교육 시설은 물론 수녀들이 머물 공간도 없었습니다. 성당 마당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보파스에서의 사도직은 ‘가르치는 일’보다 먼저 ‘곁에 있어 주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픈 이웃은 돌봐 주고, 필요한 약을 건네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보파스 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이었고, 그렇게 맺은 관계는 신뢰를 쌓아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산 증인이 나보파스 성당 주임 알란 신부입니다. 20년 전 성당 마당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땅을 내어주고, 우리 수도회 수녀들이 정착하기까지 가장 가까이에 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스무 해를 돌아보며 수녀들이 보여 준 가장 큰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억 속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걸음으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20년 전 나보파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김 루시아 수녀와 알란 신부

지 사람들의 곁을 지켜온 공동체입니다.

알란 신부는 한국의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원은 멀리 떨어져서도 같은 복음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동행이었고, 스무 해 동안 나보따스를 지탱해 온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는 사람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 수도회 네 명의 수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정명숙 유딧 수녀, 김민정 루체 수녀, 최지영 요세핀 수녀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삶 곁에 머무르는 것!’

아침이면 유치원에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집니다. 영양 부족으로 또래보다 작았던 아이가 쑥쑥 크는 모습,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친구들과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수녀들은 교육은 그저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가정방문 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는 김 가브리엘라 수녀. 좁고 어두운 방에는 침대는 물론이고 책상도 없



현재 나보따스에서 소임하고 있는 수녀들
(윗줄부터 최 요세핀 수녀, 정 유딧 수녀, 김 가브리엘라 수녀,
아랫줄 김 루체 수녀)

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김 가브리엘라 수녀는 작은 테이블을 선물했습니다. 한낱 가구에 불과한 테이블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태어나 처음 갖는 ‘자기 자리’였습니다. 김 가브리엘라 수녀는 그 테이블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선물 받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정 유딧 수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꿈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꿈꾸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난하다고 꿈이 없

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해보자, 너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합니다. 그들이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김 루체 수녀는 사도직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서모임을 하면서 언어의 한계를 절감할 때도 많지만 기회가 닿는 자리에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엮습니다.

유치원을 맡고 있는 최 요세핀 수녀는 기초가 부족해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면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불러 가르칩니다. 개인 시간을 내서 부족한 언어로나마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노력합니다.



린창고 급식소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어린이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 선포, 현재 진행형인 나보따스 사도직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할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보따스의 많은 아이들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의 손을 잡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고, 어떤 아이는 장학생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해 번듯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다시 나보따스로 돌아와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녀들은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웃들 속에서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납니다.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 주기 위



멀리서 보내 준 후원으로 꿈을 키워가는 장학생들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길

해, 교육을 통해 경쟁하게 하기보다 자신의 존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수녀들은 오늘도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나보파스 선교 20주년은 지나온 시간을 기념하기보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도 나보파스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생계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파스에서의 사도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3박 4일 동안의 탐방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한 동안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갔지만 처음 목격한 그들 삶의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면 환한 웃음으



졸업 여행으로 생애 처음 간 백화점 놀이터 입장 전 어린이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

로 먼저 다가와 축복을 청하던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그 척박했던 환경의 충격에서 잠시 벗어나 미소 짓게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보파스를 가난한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도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우리 수녀님들과 멀리 한국에서 기도해 주고, 따뜻한 기를 마련해 주고, 학비를 보태 주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으니까요.

스무 해 전, 조용히 시작된 그 작은 발걸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가 또 한 아이의 손을 잡아 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나보파스의 희망도 계속 자랄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교회는 모든 이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악보를 연주하며,
다양한 소리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치를 추구한다고
모두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같은 식탁 주위에
다시 모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 《희망》중에서

본원 저녁기도와 함께하는 텃밭전례
2026. 5. 22.

수도회 소식

설립 94주년
금·은경축
2026. 6. 27.

설립 94주년을 맞아 손삼석 요셉 주교(부산교구장)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임시 해산되었던 우리 수도회의 피난 여정과 삶이 담긴 사진전과 함께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생계가 곤란한 중에도 피난민들을 돌보는 활동을 놓지 않았던 선배 수녀들, 은인들, 그리고 하느님의 안배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성모자매회 회원들은 주먹밥과 감자 등 피난 시절 식사를 준비해 배급하며 행사에 함께했다.



▲ 서원 50주년을 맞은 5명의 수녀들(금경축)과 서원 25주년을 맞은 수녀들(은경축)이 설립 기념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유기서원 수녀
전체 모임

2026. 6. 29~7. 3.



▲ 유기서원 수녀들이 나주시에 위치한 남평 영성의 집(글라췌션 교수도회)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의 깊은 일치와 친교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희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성서모임
전국대표봉사자
연수 및 워크숍

2026. 7. 24~25.



▲ 왜관 성베네딕토 수도원 영성센터에서 2026년 가톨릭성서모임 전국대표봉사자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1테살 5,11)'를 주제로 한 1박 2일간 의 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72명의 전국대표봉사자가 함께했다.



요셉이웃사랑센터
봉사

2026. 7. 3.

▲ 사회적 약자 돌봄의 연대로 매주 금요일 샌드위치 또는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서울역 부근 쪽방촌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요셉이웃사랑센터 안분이 로벨도 수녀와 자원봉사 수녀들

명휘원
별마루 축제
2026. 7. 15.



▲▶ 장애인의 사회 재활과 직업 자활 교육을 돕는 명휘원의 2026년 별마루 축제가 열렸다. 청백 체육대회로 진행된 이번 별마루 축제는 팀별 대항을 하면서도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누며, 자활의 의지와 용기를 북돋는 시간이 되었다.



제116회
첫서원식
2026. 8. 15.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닮아 더욱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첫서원을 한 프레센시아(제니엘 디 돌로 우야미) 수녀, 나타니엘(브리히떼 텍스트레 메나) 수녀, 한희재 아오스딩 수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모자매회 소식

제54회 첫서약식

2026. 6. 15.



▲ 6월 월봉헌일에 거행된 제54회 첫서약식에서 서울본부 15명, 부산지부 4명, 시애틀지부 1명의 자매회원들이 첫서약을 하고 정회원이 되었다.

▶ 첫서약을 한 자매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노래로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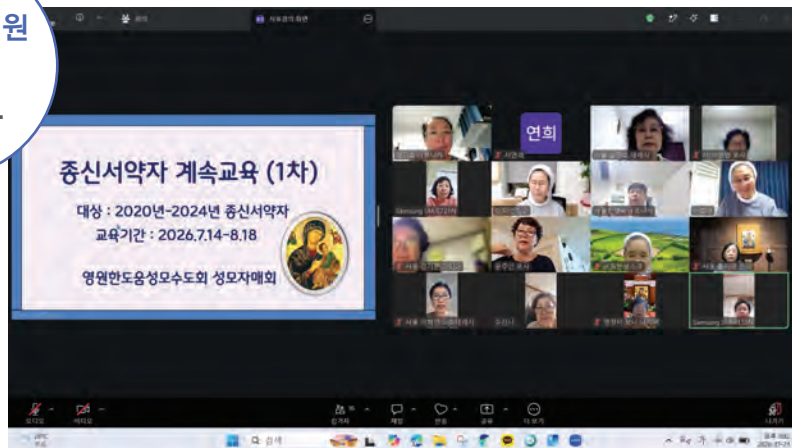
월봉헌일
2026. 7. 13.

- ▶ 서울대교구 나원균 바오로 몬시뇰의 '우리들 신앙생활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본원 성당으로 이동했다.



- ◀ 오후에는 이기주 사무엘라 수녀가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를 통해 성인의 생애를 살펴보고, 규칙서에 담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종신서약 회원
계속교육
2026. 7. 21.



- ▲ 종신서약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계속교육이 시작되었다. 2020~2024년 서울본부 및 부산지부 종신서약 회원 31명 중 1차 계속교육을 신청한 19명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총 6주간의 계속교육에 참여했다.

설립 55주년 Family Day 개최

2026. 8. 29.

성모자매회 설립 55주년을 맞아 Family Day 행사를 개최했다. Family Day는 지금의 성모자매회가 있기까지 함께한 수도회 회원들과 자매회원들의 가족·지인들을 초대해 설립 55주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은경축을 맞은 노현미 바울라(서울본부), 서미자 세레나(부산지부) 자매를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 ▶ 부산지부 설립 27주년을 맞아 푸른나무교육관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와 김병진 바오로 신부가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에서 정회원들의 서약갱신식도 거행되었다.



설립 27주년
2026. 5. 18.

월봉헌일

2026. 6. 22.



- ◀ 광희자 잔다크 수녀가 '우리 삶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다.

| 간가리 |

- ▶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가 자매회원들에게 <축복받은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월봉헌일
2026. 5. 7.

월봉헌일

2026. 8. 6.



- ◀ <축복받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마친 자매회원들이 티셔츠와 수녀원에서 수확한 커다란 아보카도를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출루감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 비야 엘 살바도르 |

- ▶ 자매회원으로서 성모님의 영성을 살아가는 삶과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나눈 후, 어머니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와 과자 선물을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6. 5. 13.

월봉헌일

2026. 6. 15.



- ▶ 자매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성모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누고, 전구를 청하며 기도했다.

| 칸또 그란데 |

월봉헌일

2026. 5. 3.

- ▲ 자매회원과 함께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그룹공부를 시작하는 교우들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다.



구속주회 방문

2026. 7. 10.



- ▲ 신영애 스페란자 담당 수녀와 자매회원들은 리마의 구속주회 본원을 방문해 기도하고, 사제 경당에서 길 예르모 신부의 강복을 받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 시애틀 |

월봉헌일

2026. 5. 17.



- ▶ 4개월 동안 월봉헌일에 성실히 출석한 강시현 가브리엘라 자매가 입회식을 통해 예비회원이 되었다. 이형욱 크리스토폴 담당수녀가 회칙과 기도서를 수여했다.

설립 35주년

2026. 6. 23.

- ▶ 미주지부 설립 35주년을 맞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과 함께 모든 회원들이 입당해 초와 성경 필사본을 봉헌했다. 이날 정회원들은 서약갱신식을 통해 성모님의 영성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 남가주 |

월봉헌일

2026. 5. 17.



- ▶ 서울본부 5월 월봉헌일에 있었던 문연희 연희세레나 수녀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강의를 영상으로 시청한 후, 자매회원으로서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6. 6. 28.



- ▶ 수도회 설립 94주년을 맞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 앞에 감사의 꽃화분을 봉헌하고, 설립기념일 행사 영상을 시청하며 수도회의 설립 정신을 되새겼다.

침묵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사랑



글 | 김경옥 레지나(혜화동 성당, 인천길병원)

가장 좋은 때의 부르심으로

우연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 하느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룬 견진성사를 작년에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 저를 부르셨고, 그 은총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도원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도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침묵과 평화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침묵과는 달리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고요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낮기도 시간, 성당 안의 은은한 조명과 성가, 그리고 기도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 저도 해야 할 일들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기도는 습관처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침묵은 잠시 멈추어도 괜찮고,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하느님의 품 같았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기, 조용히 채워지는 평화는 낮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두려움과 상처,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하나둘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그 침묵 안

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참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옆에서 함께해 주신 주님

저는 유방암 투병을 하며 제 삶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하느님께 수없이 질문하며 견뎌왔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침묵은 그 질문을 다시 떠오르게 했고,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1,10)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건네 해 주셨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 역시 깊은 감동이었습니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지향을 품고 같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 안에서 전구 기도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알아들으며,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들의 밝고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수도원체험은 저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나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일상 곳곳에서 현존하는 특별한 사랑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본원 성당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



제155차 수도원체험 나눔의 시간



수도원체험은 매월 첫 토요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주최하는 하루 일정의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을 떠나 수도자들의 기도와 침묵을 경험하고, 말씀과 찬미와 미사를 통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행복을 맛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강경숙	김길여	김영옥	김현아	박은경	송선정	오은희	윤유석	이승분	이현준	전자영
강대환	김남수	김영자	김화현	박정숙	송운경	오정애	윤재갑	이연심	이현희	전정민
강미진	김남필	김영태	김효선	박정자	송은주	오진숙	윤재성	이영미	이혜경	전종성
강민경	김도연	김옥순	김희숙	박준희	송주라	오창선	윤혜련	이영빈	이혜자	전주리
강상옥	김동순	김옥자	김희순	박진휘	송하영	오해영	윤혜연	이영원	이혜주	전주운
강선이	김말순	김용각	나승경	박참슬	신 숙	오현정	윤홍자	이영자	이혜진	전주희
강설순	김명섭	김용진	남금자	박형호	신동현	오혜숙	이경희	이영주	이희병	전춘실
강영옥	김명희	김유정	남기란	박혜신	신상희	우정숙	이관우	이영환	이희열	정광영
강영진	김미경	김운순	남윤건	박혜원	신성옥	원미자	이덕아	이용순	이희정	정난희
강훈승	김미원	김은순	남일현	반경자	신은도	유금순	이말금	이우창	임명숙	정남숙
고경옥	김미자	김은영	노치권	배수경	신정택	유미하	이명분	이은경	임미숙	정대진
고순례	김미현	김은희	동경자	배순원	신종현	유선우	이문희	이은아	임민아	정미다
고순희	김미희	김정미	류원백	백인자	심금화	유재숙	이미나	이은홍	임상무	정민경
고예리	김범수	김정선	류지윤	변정희	심우정	유정선	이미령	이인용	임석수	정민희
고현순	김병이	김정숙	문복자	서명동	심재경	유정현	이미선	이재구	임순영	정설령
공석초	김보영	김정순	문정희	서복순	안대인	유지영	이미자	이재숙	임승옥	정성진
곽숙자	김상희	김정옥	문태성	서세례나	안명조	유진희	이미화	이정림	임양순	정성희
곽신영	김석용	김종률	문혜숙	서연희	안성희	유찬영	이민희	이정연	임영규	정수훈
곽정희	김석준	김종석	민병희	서예진	안재희	유태안	이상분	이정현	임정숙	정순남
곽중섭	김성천	김종욱	민영석	서주혜	안정은	유현중	이상일	이정희	임정화	정애경
곽화숙	김소정	김지혜	민옥기	선군자	안주현	유희영	이석순	이제식	임화용	정연숙
구현민	김수연	김진택	박기분	성하림	안혜영	유희정	이선근	이주안	장년수	정연택
권진	김수진	김진한	박기자	손병윤	양경철	육희수	이선화	이주원	장복념	정영진
권분연	김순례	김춘희	박대성	손상운	양성후	윤경임	이설행	이중길	장은유	정윤희
권선미	김순임	김태은	박명옥	손윤모	양영은	윤공순	이성신	이지선	장재경	정은숙
권태영	김순희	김태호	박서영	손주영	양정희	윤규섭	이소연	이지영	장재원	정의정
김선	김승현	김평수	박선희	손준서	양현숙	윤명자	이수진	이진태	장후남	정정순
김숙	김안선	김현경	박소연	손춘영	엄경용	윤미숙	이수현	이창순	장희운	정홍숙
김금련	김애중	김현동	박소영	손한수	오나래	윤선미	이순영	이춘화	전세현	정희정
김기문	김영경	김현미	박수진	송미경	오성애	윤성업	이순임	이현재	전수진	조경배
김기복	김영숙	김현숙	박영철	송선옥	오은미	윤시림	이순희	이현숙	전엘리자벳	조규하

조금옥	조옥현	주은희	차운수	최복희	최재호	하광희	한재범	허정미	홍재술	황윤자
조베로니가	조인숙	주재로	차운지	최안나	최제원	하동기	한정열	허희선	홍진숙	
조성희	조정순	주하나	채현	최연옥	최지현	하애란	한진규	현복자	황규택	
조순임	조현숙	지경미	채성희	최영림	최진희	하재철	한진선	현정일	황보영숙	
조영광	조현주	지연희	천오성	최영혜	최해인	한구병	한평섭	현진호	황숙자	
조영심	조혜옥	진기순	최솔	최운숙	최혜식	한기철	한평애	홍도경	황순례	
조영옥	조혜진	진미숙	최경옥	최윤희	최홍원	한나일	허남	홍문숙	황승옥	
조영이	조휴동	진영서	최미수	최은경	최희순	한시학	허준	홍순필	황애현	
조영자	주비호	차경자	최병습	최재진	표순분	한인숙	허미숙	홍은정	황윤서	

310	리치로지스틱스 이근	부산교구 안락성당
(사)동아시아복음화	부페아리스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사)마을과 아이들 스승의날 후원금	선사모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일화사	부산교구 청학성당
(주)대방수산	김나현(미소회)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주)엘케이케이	김옥순(최기종)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
(주)유나이트드	김태연(김지후)	서울대교구 목동성당 빈첸시오회
(주)인동FN	박미숙(김수준)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주)제이엔지쥬이엘리	박용식(김진원)	수원교구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주)지후	서지현(윤지원)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주)한양정밀	이재환(고은실)	수원교구 범계성당 52구역
(주)홍진경	전택근(최용자)	수원교구 범계성당 57구역
대방수산(주)	정세민(우정숙)	수원교구 범계성당 초등부주일학교
청이설인(주)	정의준(김민정)	수원교구 수지성당 황선기신부
해주씨푸드(주)	조희성(김홍련)	수지성서모임
탐플러스마트(개금점)	홍형주(이혜진)	성모자매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	이태원(시원유통)	
한림제약	임창준(이엔이치과)	2027 WYD 해외선교지청년 참가비용 후원
ABC동호회	수지사랑의예물	김명희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흑석동성서모임 서울4지역	장연수(카자흐스탄)
고르다(수지)	흑석동성서모임 코린토연수	엄신연(카자흐스탄)
나보타스장학회	이동익 신부	반종군(카자흐스탄)
보바스기념병원원목실	안상인 신부	
로이드선급협회	메리놀수녀회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문우당서점월정	부산교구 명지파티마성모성당	
리오카페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주일학교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광희자 잔다크 수녀
M. 010-9164-1477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차덕희 알벨토 수녀
M. 010-2920-2746

H.O.M in 사강

185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29

-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
M. 010-7617-0900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97 564 1530
E. rose-mira@hanmail.net
- Sr. Su Eun Gemma Jang , SOLPH
(장수은 수은젬마 수녀)
M. +84 97 504 5954
E. sueungemma@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릿타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글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디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T. +7 7282 245 002

- Sr. Eunyo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Jeesse Shin, SOLPH(신민옥 이새 수녀)
M. +7 778 019 4682
E. jesse594@hanmail.net



페루 PERU

칸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Marie Hucco Kim(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M. +51 958 733 136
E. mhucco07@g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클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E. rociocielo811@gmail.com

비아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Mari Joseph Kwak(곽호임 마리오셉 수녀)
M. +51 992 665 696
E. hoimkwak@gmail.com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E. lisa0737@naver.com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0 554 1272
E. kimluce639@gmail.com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조향순 소피아, 태기산 Muiri, Bongpyeong-myeon, Gangwon-do, Korea 2019

후원 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